

포플라나무 禮讚

金教信 (1934)

『성서조선』

(其一)

落落長松의 우거진 景概가 壯하지 아님이 아니나 白雪이 滿乾坤할 때 獨也靑靑할 만한 義烈의 士가 아님을 어찌하며, 雲表에 우뚝 솟은 銀杏의 巨樹가 偉觀이 아님이 아니나 仁義에 基盤을 세운 孔夫子에게 敬遠하는 생각이 앞섬을 어찌하며, 梅竹이 귀엽지 아님이 아니나 詩人 墨客의 醉興을 損할까 저어하니, 차라리 우리는 溪邊에 班列지으며 或은 古城에 외로이 솟은 포플라나무를 우러러보고자 하노라. 포플라는 하늘을 向하고 산다.

人間 살림에 勢力鬪爭이 있고 國家生活에 領土擴張의 野望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무릇 巨大한 樹木은 그 樹勢를 널리 橫으로 퍼서 一將攻城에 萬骨枯라는 셈으로 巨樹의 廣闊한 枝葉이 任意로 茂盛을 極하기 위하여 그 前後左右의 萬草가 枯渴을 當하고야 만다. 오직 포플라나무만은 橫으로 勢力을 벌리려 하지 않고 縱으로 하늘을 向하여 자라고 또 자라기만 한다. 그 一直한 軀幹과 垂直的으로 하늘을 向한 大枝·小枝는 호렙山 아래서 祝福하는 모세의 손인가, 갯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예수의 팔뚝인가? 有限한 橫으로 살지 않고 無限한 縱으로 하늘로 사는 포플라야말로 高貴하다.

포플라는 悲哀의 나무다. 春陽에 포플라의 새싹이 發動하는 것처럼 生命의 搖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시 없으니 新春의 포플라가 물론 可하며 綠陰芳草勝花時에 雨後에 天地를 새롭게 하는 포플라의 淸風이 또한 嘉賞한 것임은 勿論이나 포플라의 本色은 아무래도 秋色에 悲愴이 滿身함에 있는 듯하다. 丹楓의 붉음은 오히려 艷態를 보이거니와 포플라나무의 黃葉은 文字 그대로 悽慘한 身世를 表示한다. 古城에 외로이 솟은 포플라 한 대가 風雨에 부대껴 큰 줄기와 가는 가지까지 끄들렸다간 풀리고 휘어졌다간 다시 서고 하는 光景이며, 晚秋에 夕陽을 黃葉에 反映하면서 微風에도 오히려 一葉씩 歸根하는 姿態를 보라. 포플라의 長幹纖枝가 滿身に 悲愴을 머금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喪服에 싸인 寡婦의 處地를 聯想케 하거니와 그보다도 오히려 깊고 높고 넓은 悲慟이다.

實로 天才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悲哀의 사람〉 예수의 肖像을 생각지 않고는 포플라 特有의 悽慘한 光景을 비기지 못하며, 눈물의 豫言者 예레미야의 한숨소리 없이는 포플라나무를 차마 보지 못한다. 天下의 悲慟을 一身에 머금은 포플라와 人類의 悲哀를 한몸에 걸머진 예수!

포플라나무는 地平線을 깨뜨린다. 濠州에는 유카리樹라는 高木이 있다 하나 우리 周圍에는 100尺 乃至 150尺까지 天空에 솟은 포플라가 우선 高樹가 아닐 수 없다. 무릇 猜忌와 黨爭은 矮小에서 생긴다. 홀로 雲表에 頭角을 두고 微風과 電光에 全身이 振動하여 責하는 이 없어도 스스로 痛悔하고 섰으니 그 敏感, 그 高潔함이어! 놀랍도다.

(其二)

포플라는 그 줄기나 가지나 다만 一直한 것외에 볼 것이 없다. 奇奇妙妙한 曲折도 없고 視線을 새롭게 할 만한 色彩도 없다. 다만 푸르고 오직 곧고 긴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水石을 즐기며 盆栽를 일삼는

이들에게는 포플라는 何等の 取할 點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그 取할 데 없는 點이 高貴하다. 曲藝와 術策은 모두 다른 나무에 求하라. 그리고 오직 純直하고 單明한 것만은 포플라나무에서 찾으라.

古色蒼然한 것을 찾는 이는 포플라나무의 새롭고 젊은 것이 不可하다 한다. 果然 포플라나무는 半島에 新來한 客이니 그 이름을 洋柳라고도 하거니와 포플라나무 보이는 데는 外來의 風趣가 없지 않고 輕薄의 가락이 全無함이 아니다. 그래도 포플라의 竝列한 堤防은 水難과 風災를 免하였다는 것을 말함이 되고 洋柳의 푸른 빛이 울타리처럼 둘러싼 동네는 新興의 氣運이 漲溢함을 示證하여 마지 않는다. 國粹가 可하고 傳統이 貴하다 하나 靑苔가 끼인 瓦片과 古塚에서 나온 破環은 骨董家나 古廓者의 閑時日에 맡기라. 生物은 새로울수록 그 生命이 旺盛하니 赤松을 심었던 것이 半島 江山의 벌거숭이 된 一因인 줄 알았거든 赤松을 뽑고 勢力 强盛한 나무를 代植할 것이요, 舊幹이 枯衰하였거든 새싹을 接木하는 일이 至當하지 않은가.

옛것을 崇尚하고 낡은 것을 생각한들 故殼이 된 後에야 무슨 所用이 있으랴. 古色을 자랑하는 佛敎도 可하지 않음이 아니요, 傳統을 崇尚하는 儒敎도 禁할 것이 아니나 問題는 生命의 力量이다. 비록 半世紀의 歷史만을 가졌을지라도 靈魂의 奧底에서부터 生命建築의 마치소리 씩씩하게 자라나는 基督의 산 生命에 부딪쳐볼 때에, 우리의 눈은 新來의 나무 포플라의 鬱蒼함을 쳐다보게 된다. 부럽도다, 江邊에 선 포플라나무의 새로운 生命, 꾸준한 生命!

포플라는 그 細長한 姿態로 인하여 그저 부드럽고 한갓 軟弱하여 女性的인 듯이도 보이나 이는 速斷임을 免치 못한다. 外觀과 遠景이 女性같이 보이지 아니함이 아니나 接近할 때에 그 巨幹이 地軸을 뚫고나온 듯한 威勢에 사람으로 하여금 壓倒케 함은 포플라나무의 特性이다. 높은 나무는 風霜이 많다. 그 枝葉이 微風에도 振動함이 感傷

的인 女性보다도 銳敏하나 大地에 떡 버티고 선 그 雄姿는 丈夫의 녀
그대로이다. 柔順할 대로 柔順하면서도 聖殿을 盜窟化하는 무리들을
向하여는 義奮의 채찍을 휘날리지 않을 수 없었던 어린 양을 竝想하면서
저 포플라나무를 바라보라. 부드럽고도 굳센 것은 포플라나무로다.